

창업가의 호기심이 도전성, 혁신성 및 경쟁추구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경제대학원 혁신창업성장학과 교수)**

김관수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영혜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인 호기심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창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인 요인들(도전성, 혁신성, 경쟁추구성)과 호기심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호기심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 네 가지 개별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전성,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자는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창업을 한 사람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마다 호기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최종 248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호기심은 창업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호기심은 창업가의 도전성과 혁신성, 경쟁추구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 가운데 도전성은 혁신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쟁추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의 개별요인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전성에는 결핍민감성과 유희적탐구가, 혁신성에는 사회적호기심과 자극추구가, 경쟁추구성에는 자극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가들의 호기심과 기업가정신의 실천적 요인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지원활동 가운데 창업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호기심, 혁신성, 도전성, 경쟁추구성, 구조방정식분석

1. 서론

창업가들이 성공 창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 차별화된 아이템과 자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Start-up 창업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업가정신이다(김영수·정연대·윤정호, 2018). Barney(1991)는 자원기반이론을 설명하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흉내 내기도 어렵고 대체하기도 어려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업가 스스로가 기업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하게 기업가정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Covin & Slevin(1991), Miller(1983), Stevenson & Gumpert(1985), 박재환·김우중(2015)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도전성, 경쟁추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는데 이들 변수들은 기업성과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함양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창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이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창업가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교육이나 창업가의 경험 그리고 창업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원천적인 요인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들에 집중하여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철성·이호배(2018)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조절효과로 사용하여 디자인이 소비자의 놀이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의

* 이 결과물은 2019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경제경영대학원 혁신창업성장학과 교수, geum@cu.ac.kr

*** 공동저자,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pskim@knu.ac.kr

**** 교신저자,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yhj0918@kmcu.ac.kr

· 투고일: 2020-03-06

· 1차수정일: 2020-04-13

· 2차수정일: 2020-04-26

· 게재확정일: 2020-04-28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박성희(2007)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신규스포츠 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면서 호기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호기심을 고려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인 호기심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성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rt-up 창업가들의 창업아이템 창출과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큰 개인적 특성이 호기심으로 판단하였다. 즉 호기심은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창업가들에게 창업은 두려움과 실패가 공존하는 하는 것으로, 창업에 도전한다는 자체와 창업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초기 창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가운데, 실천적인 요인인 도전성과 혁신성 경쟁추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실천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의 Start-up기업을 대상으로 호기심, 도전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문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호기심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Start-up기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를 확인하게 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투자자, 창업지원을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함양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2.1 호기심

호기심은 심리학에서 연구가 시작된 개념으로 이를 응용하여 생태학, 경제학,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erlyne(1966)은 호기심의 모형을 제시하고 심리학에서의 주로 다루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 행동의 시작으로 호기심을 소개하였다. 특히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Borowske, 2005) 창의력을 고취한다는 연구도 있다(Kashdan, 2002). Loewenstein(1994)은 호기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지혜나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호기심을 설명하였다. 즉 학습의 욕구로서 호기심을 소개한 것이다. Kashdan et al.(2018)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종합하여 다섯 가지 차원의 호기심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석희(2009)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호기심은 단순하게 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나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박성희(2007)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자극적 호기심, 지식적 호기심, 포괄적 호기심, 구체적 호기심, 특성적 호기심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승민(2017)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신기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물론 신기성은 호기심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호기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정의를 하면서 신기성의 주요 요인으로 흥미성, 차별성, 활력성, 개방성, 미래지향성, 유용성을 소개하였다. 이철성·이호배(2018)의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서의 호기심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미니멀리즘디자인이 놀이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호기심이 디자인 놀이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Kashdan et al.(2018)의 연구 그리고 Birenbaum et al.(2019)의 연구에서 제안한 호기심의 차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호기심 차원의 분류는 비영어권의 국가에서 특히 잘 적용된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호기심이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도전의지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같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기심의 차원은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 등 네 가지이다. 선행 연구가 제안한 다양한 호기심의 차원 중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의 차원에 가장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였다. 결핍민감성은 지식의 격차를 인지하고 이것을 줄이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핍민감성으로서 호기심의 특징은 Berlyne(1966)과 Loewenstein(1994)의 연구에 바탕을 두었다.

유희적탐구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Deci & Ryan(1981)의 연구에서 어린아이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동기로서의 호기심을 설명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며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다. Renner(2010)는 사회적 호기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흥미를 느끼고 궁금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극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가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Zuckerman & Litle(1986)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호기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의 차원들이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인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차원으로 보았으며, 특히 기업가정신 가운데 실천적 요인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2.2 기업가정신

Start-up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자의 역량에 관련된 오래된 연구는 Schumpeter(193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 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 그리고 기업구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을 강조하였다. Mahmood & Norshafizah(2013)는 창업자의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백서인 외(2015)는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즉 기업가정신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기업가정신의 중요함이나 기업가정신의 성과를 제대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기업가정신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Covin & Slevin(1991), Miller(1983), Stevenson & Gumpert(1985), 박재환·김우중(2015)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은 혁신성이다. 혁신성은 기술혁신, 제품디자인 등 경영활동 요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었다(장성희·마운주, 2011).

즉 시장지향적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혁신성이다.

김진영(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주성, 경쟁심을 제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쟁심이라는 개념이다. 경쟁심은 Lumpkin & Dess(1996)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소개되었다. 경쟁추구성은 호기심의 결핍민감성과 사회적 호기심과 연관이 있는 변수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결핍민감성은 지식이 없을 때 견디기 힘들어하는 특성이거나, 사회적 민감성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호기심은 결국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중 다른 기업이나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가정신과 연관이 있다.

김예원 외(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참신성과 도전의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국의 샤오미 대상 사례연구에서 레이권의 기업가정신의 가장 큰 두 축으로 도전정신을 확인하였다. 윤혜숙 외(2018)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하나로써 도전성을 포함하였다. 도전정신에 관련된 연구는 김주희(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희망적 효능감, 낙관적 회복력, 인내심이라는 세 가지 개념과 창업자신감이라는 종속변수사이의 매개변수로 도전정신을 소개하고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서의 도전성을 주목하였다. 호기심과 개별 기업가정신의 요인 사이에 도전성이라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종속 변수	혁신성	시장지향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	· 변화와 혁신을 중시함 · 독창적인 방법을 선호함 ·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Mahmood & Norshafizah(2013), 김진희 외(2008)
	경쟁추구성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두고 타 조직과 직접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특성	· 경쟁을 통해서 동기부여 됨 · 경쟁에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접근 · 경쟁자를 무력화하거나 압도하려 함	김진영(2019), Lumpkin & Dess(1996)
매개 변수	도전성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성	· 참신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함 ·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함 · 실행을 위해 방법을 계속 바꿈	김주희(2012), 김예원 외(2019), 윤혜숙 외(2018)
독립 변수	결핍 민감성	지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함	· 까다로운 문제를 풀려고 함 ·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민함 · 문제해결 못하면 답답함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약착같이 고민함	Berlyne(1966), Loewenstein(1994)
	유회적 탐구	세상의 재미있는 다양한 특징에 항상 궁금해 함	·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 성장을 줌 ·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 도전 · 고민거리를 찾음 ·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배우고자함	Deci & Ryan(1981)
	사회적 호기심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궁금해 하고 알기위해 노력함	· 다른 사람의 습관이 알고 싶음 · 다른 사람의 행동을 궁금해 함 · 다른 사람 대화가 궁금함 · 다른 사람의 대화 듣는 걸 좋아함 · 다른 사람의 논쟁을 알고 싶음	Renner(2010)
	자극추구	자극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 함	· 새로운 것이 주는 불안이 활력을 줌 ·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할 때 신이 남 ·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함 · 계획보다는 새로운 모험을 경험 함 · 어디로 튈지 모르 유쾌한 친구 있음	Zuckerman & Litle(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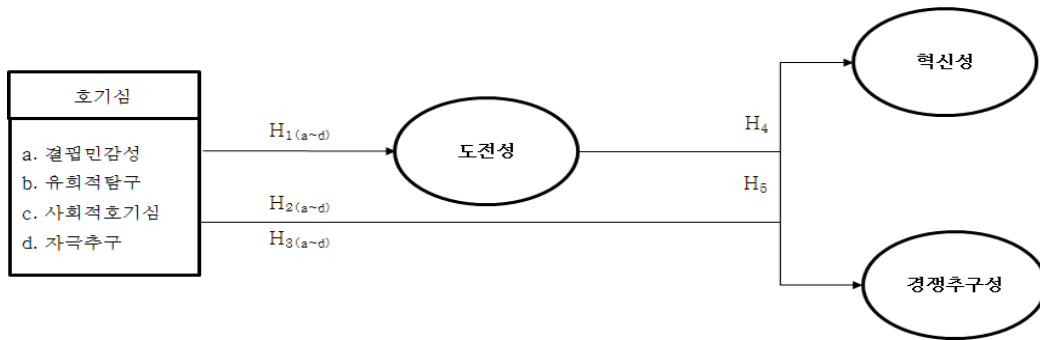
III.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3.1 연구모형 도출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중에서 혁신성과 경쟁추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용한 변수는 도전성과 호기심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은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의 네 잠재요인을 사용하였다. Kashdan et al.(2018)의 연구 그리고 Birenbaum et al.(2019)에서 제시한 호기심의 차원을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경쟁추구성, 그리고 도전성에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기업가정신 중에서는 여

러 잠재요인들 중에서 도전성과,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가정신의 잠재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 진취성, 자주성, 경쟁심 등(김진영, 2019)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모든 요인을 다 고려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호기심이라는 심리학적 변수의 결과변수로 나타나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창업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실천적 요인(도전성, 혁신성, 경쟁추구성)을 중심으로 도출하여 호기심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호기심의 네 가지 요인(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 호기심, 자극추구)이 기업가정신인 도전성, 혁신성, 경쟁추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구성이다. 여기서 도전성은 매개 역할을 하여 다시 혁신성과 경쟁추구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2 가설의 설정

위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들은 호기심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먼저, 호기심에 대한 네 가지 변수는 Kashdan et al.(2018)의 연구 그리고 Birenbaum et al.(2019)의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 잠재변수를 고려하여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 가운데 창업가의 호기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천적 요인인 도전성,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을 제안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이 있지만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Jeraj,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호기심에 대한 반응요인을 도출하여 호기심의 네 가지 개념을 잠재변수로 보고 각각의 변수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가의 호기심[결핍민감성(1a), 유희적 탐구(1b), 사회적호기심(1c), 자극추구(1d)]은 도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가의 호기심[결핍민감성(2a), 유희적 탐구(2b), 사회적호기심(2c), 자극추구(2d)]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가의 호기심[결핍민감성(3a), 유희적 탐구(3b), 사회적호기심(3c), 자극추구(3d)]은 경쟁추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전성은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고, 희망적 효능감, 낙관적 회복력, 인내심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주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성은 혁신성과 경쟁추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가의 도전성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창업가의 도전성은 경쟁추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4.1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방법

변수들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척도를 본 연구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호기심은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척도 개발도 하였으나(Nishikawa & Amemiya, 2015),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분야에 적합한 Kashdan et al.(2018)이 조지메이슨 대의 패트릭 맥나이트 연구가 제안한 호기심 모형 가운데 결핍민감성, 유희적 탐구, 사회적 호기심 그리고 자극추구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9개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가운데 창업가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창업에 대한 흥미와 실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도전성은 Bouquet et al.(2018)이 제안한 창업가의 혁신역량 가운데 실험정신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4개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혁신성과 경쟁우주성은 Miller(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Covin & Slevin, 1991; 윤혜숙 외, 2018; 김관수 외, 2019).

많은 사람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관련 교육을 받더라도 막상 창업하는 시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실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호기심은 획기적인 혁신을 이끄는 기폭제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가들의 또 다른 개인적 특성요인인 호기심이 창업에 도전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기술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을 한 20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과 관련된 자문이나 교육 등을 위한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수집하였으며, 총 2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통해 응답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와 AVE 값의 비교, 복합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변수들 간의 가설은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도전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Sobel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창업단계에 따른 호기심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77	71.4	학력	고졸	54	21.8
	여성	71	28.6		초대졸	25	10.1
연령	20대	97	39.1		대졸	129	52.0
	30대	61	24.6		대학원졸	40	16.1
	40대	50	20.2	창업 단계	창업 생각 중	58	23.4
	50대	34	13.7		창업 준비 중	93	37.5
60대 이상	6	2.4	창업을 하였음		97	39.1	

<표 3>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사회적 호기심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이 궁금함	.841	.107	.047	.093	.071	.141	.040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함	.783	.176	.202	.113	-.017	.042	.057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음	.751	.153	-.028	.164	.294	.102	.023
	다른 사람의 습관에 대해 알고 싶음	.722	.113	-.057	.215	.363	.182	-.041
	사람들이 논쟁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함	.673	.296	.188	.083	-.126	.055	.176
자극 추구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음	.214	.794	.125	.115	.240	.129	.052
	계획된 모험보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음	.203	.778	.066	.210	.223	.145	-.020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할 때 신이남	.185	.672	.144	.161	.077	.204	.237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이 활력이 됨	.098	.559	.122	.391	.260	.167	.247
	어디로 될지 모르는 유쾌한 친구가 좋음	.229	.550	-.027	.167	.146	.303	.079
결핍 민감성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몇 시간씩 고민함	.101	.111	.862	.079	.235	.037	.100
	까다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밤잠 설침	.161	.017	.786	-.054	.207	.082	.158
	문제해결 못하면 답답해서 더 열심히 고민	.051	.114	.770	.253	-.051	.202	.148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악착같이 매달림	-.006	.094	.715	.335	-.003	.152	.159
유희적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상황을 찾아다님	.334	.097	.047	.675	.186	.165	.137

탐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 경험을 찾음	.156	.260	.231	.661	.295	.031	.084
	어려운상황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줌	.074	.325	.349	.572	.052	.061	.138
	익숙하지 않는 주제를 배우길 좋아함	.302	.335	.157	.558	.166	.092	.158
혁신성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편임	.157	.368	.118	.216	.720	.160	.106
	문제해결에 독창적 방법을 선호하는 편임	.226	.317	.197	.200	.692	.213	.212
	일 처리할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121	.270	.222	.305	.641	.194	.292
경쟁 추구성	경쟁자를 무력화거나 압도하려고 함	.134	.173	.171	-.036	.013	.831	.109
	경쟁에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접근함	.135	.225	.127	.126	.238	.820	.045
	경쟁을 즐기고 경쟁을 통해 동기부여 받음	.173	.262	.152	.301	.205	.635	.125
도전성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함	.108	.028	.183	.263	.012	.195	.810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방법을 자주 변경	.118	.314	.268	-.050	.306	-.012	.645
	아이디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	-.028	.156	.303	.265	.393	.098	.612
고유치		10.443	2.640	1.784	1.403	1.079	.985	.911
누적분산비율		38.679	48.456	55.062	60.258	64.254	67.904	71.278
Cronbach's α		.867	.857	.856	.793	.889	.822	.763

4.2 표본의 특성

응답자들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남성이 71.4%(177명)로 여성보다(28.6%, 71명) 많았으며, 연령은 20대가 3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상인 경우도 16.1%로 나타나 창업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의 연령대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52%(1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창업단계는 창업생각중인 경우가 23.4%(53명), 창업준비중인 경우가 37.5%(93명) 그리고 창업을 한 경우는 39.1%(97명) 등으로 나타났다.

4.3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Cronbach's α 값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상관관

계 계수와 AVE 값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모든 변수가 .70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도 고유치 .911이상 요인추정치 .550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중복된 측정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chi^2(df)=636.997(302)$, $p=.000$, $\chi^2/df=2.109$, RMR=.109, GFI=.843, AGFI=.804, NFI=.850, IFI=.915, TLI=.900, CFI=.914, RMSEA=.067)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531에서 .913사이로 나타났고, CR값은 모두 1.96이상의 나타나 변수들의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의 복합신뢰도 (composit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ble extracted) 값을 확인한 결과, 복합신뢰도는 .764에서 .902사이로 확인되었고, AVE 값은 .501에서 .754사이로 나타나 변수들의 내적타당도와 집중타당도를 확인되었다. 한편, AVE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제곱은 (ρ^2)값 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4>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S.E	C.R.	P	복합신뢰도	AVE	
결핍 민감성	결핍4	.747			.864	.615	
	결핍3	.764	.088	11.703			.000
	결핍2	.868	.096	13.140			.000
	결핍1	.753	.114	11.527			.000
유희적 탐구	유희9	.738			.798	.501	
	유희8	.667	.099	9.843			.000
	유희7	.768	.089	11.312			.000
	유희6	.645	.080	9.499			.000
사회적 호기심	사회15	.531			.857	.552	

	사회14	.646	.117	10.005	.000		
	사회13	.789	.182	8.233	.000		
	사회12	.856	.188	8.525	.000		
	사회11	.841	.189	8.470	.000		
자극추구	자극25	.621				.863	.561
	자극24	.820	.120	10.178	.000		
	자극23	.816	.122	10.143	.000		
	자극22	.724	.132	9.326	.000		
	자극21	.747	.118	9.543	.000		
도전성	도전12	.838				.764	.523
	도전13	.654	.080	10.079	.000		
	도전14	.664	.078	10.248	.000		
혁신성	혁신1	.839				.902	.754
	혁신2	.913	.063	18.129	.000		
	혁신3	.852	.067	16.443	.000		
경쟁추구성	경쟁13	.755				.833	.626
	경쟁14	.885	.102	12.623	.000		
	경쟁15	.725	.108	11.019	.000		

$\chi^2(df)=636.997(302)$, $p=.000$, $\chi^2/df=2.109$, $RMR=.109$, $GFI=.843$, $AGFI=.804$, $NFI=.850$, $IFI=.915$, $TLI=.900$, $CFI=.914$, $RMSEA=.067$

<표 5> 변수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변수	AVE	1	2	3	4	5	6	7
1. 결핍민감성	.615	.784						
2. 유희적탐구	.501	.471**	.707					
3. 사회적호기심	.552	.263**	.527**	.742				
4. 자극추구	.561	.353**	.645**	.518**	.748			
5. 도전성	.523	.537**	.535**	.285**	.490**	.723		
6. 혁신성	.754	.425**	.628**	.459**	.664**	.589**	.868	
7. 경쟁추구성	.626	.373**	.457**	.394**	.553**	.390**	.513**	.791
평균		5.426	5.326	5.274	5.069	5.254	5.433	4.828
표준편차		1.098	1.012	1.138	1.127	1.062	1.140	1.274

* 대각선 부분(이탈릭체): \sqrt{AVE}

4.4 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예비창업가와 창업가들 간의 호기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예비창업자들 가운데, 창업을 생각중인 사람,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그리고 창업을 한 사람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호기심의 개별요인들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표 6>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기심의 구성요인인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 모두 세 집단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우선, 창업을 생각 중인 사람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한 사람보다 호기심의 구성요인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호기심의 개별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결핍민감성과 유희적탐구의 경우에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호기심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극추구는 창업을 생각 중인 사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현하는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호기심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가운데 도전성과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모형을 검증한 후, 호기심의 개별변수로 구분하여 제안한 개별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호기심을 단일변수로 적용한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chi^2(df)=160.244(60)$, $p=.000$, $\chi^2/df=2.671$, $RMR=.093$, $GFI=.904$, $AGFI=.854$, $NFI=.912$, $IFI=.943$, $TLI=.925$, $CFI=.942$, $RMSEA=.082$, $**p<.05$, $*p<.10$), 호기심은 도전성과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가운데 창업가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창업에 대한 흥미와 실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도전성은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경로추정치: .219, CR: 2.449, $p < .05$), 경쟁추구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경로추정치: -.097, CR: -.837, $p > .05$).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호기심과 혁신성 및 경쟁추구성간의 관계에서 도전성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호기심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는 도전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추정치: 2.459, S.E: .065, z-value: .013), 호기심과 경쟁추구성간의 관계에서는 도전성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추정치: -.867, S.E: .082, z-value: .389). 이러한 결과는 호기심이 도전성을 통한 경쟁추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추구성의 직접적인 관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창업특성에 따른 호기심의 차이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결핍 민감성	창업생각 중	58	5.120	.971	4.111	.018**
	창업준비 중	93	5.505	1.025		
	창업을 하였음	97	5.573	.961		
유회적 탐구	창업생각 중	58	5.003	.968	7.368	.001**
	창업준비 중	93	5.591	.888		
	창업을 하였음	97	5.490	.992		
사회적 호기심	창업생각 중	58	5.106	.857	2.674	.071*
	창업준비 중	93	5.486	1.112		
	창업을 하였음	97	5.171	1.278		
지극추구	창업생각 중	58	4.689	1.000	5.571	.004**
	창업준비 중	93	5.307	1.030		
	창업을 하였음	97	5.068	1.229		

** : $p < .05$, * : $p < .10$

<표 7> 창업특성에 따른 호기심의 차이에 관한 사후분석 결과

종속 변수	(I)	(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결핍 민감성	창업생각 중	창업 준비 중	-.384*	.165	.021**
		창업을 하였음	-.45251*	.164	.006**
	창업준비중	창업 생각 중	.384*	.165	.021**
		창업을 하였음	-.067	.143	.637
	창업을 하였음	창업 생각 중	.452*	.164	.006**
		창업 준비 중	.067	.143	.637
유회적 탐구	창업생각 중	창업 준비 중	-.587*	.158	.000**
		창업을 하였음	-.487*	.157	.002**
	창업준비중	창업 생각 중	.587*	.158	.000**
		창업을 하였음	.100	.137	.466
	창업을 하였음	창업 생각 중	.487*	.157	.002**
		창업 준비 중	-.100	.137	.466
사회적 호기심	창업생각 중	창업 준비 중	-.379*	.189	.046**
		창업을 하였음	-.064	.187	.732
	창업준비중	창업 생각 중	.379*	.189	.046**
		창업을 하였음	.314	.163	.056*
	창업을 하였음	창업 생각 중	.064	.187	.732
		창업 준비 중	-.314	.163	.056*
지극추구	창업생각 중	창업 준비 중	-.617*	.185	.001**
		창업을 하였음	-.378*	.183	.040**
	창업준비중	창업 생각 중	.617*	.185	.001**
		창업을 하였음	.239	.160	.137
	창업을 하였음	창업 생각 중	.378*	.183	.040**
		창업 준비 중	-.239	.160	.137

** : $p < .05$, * : $p < .10$

<표 8> 변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결과(메인모델)

Path		Estimate	S.E.	C.R.	P
호기심	→ 도전성	.734	.089	9.531	.000**
호기심	→ 혁신성	.681	.105	7.136	.000**
호기심	→ 경쟁추구성	.781	.141	6.185	.000**
도전성	→ 혁신성	.219	.085	2.449	.014**
도전성	→ 경쟁추구성	-.097	.112	-0.837	.403

$\chi^2(df)=160.244(60)$, $p=.000$, $\chi^2/df=2.671$, $RMR=.093$, $GFI=.904$, $AGFI=.854$, $NFI=.912$, $IFI=.943$, $TLI=.925$, $CFI=.942$, $RMSEA=.082$, **: $p<.05$, *: $p<.10$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의 개별적 요인(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을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인 도전성,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chi^2(df)=641.532(303)$, $p=.000$, $\chi^2/df=2.117$, $RMR=.109$, $GFI=.843$, $AGFI=.804$, $NFI=.849$, $IFI=.914$, $TLI=.899$, $CFI=.913$, $RMSEA=.067$), 호기심의 개별요인별 도전성과 혁신성, 경쟁추구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결핍민감성과 유희적탐구는 도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적호기심과 자극추구는 도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호기심과 자극추구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핍민감성과 유희적탐구는 혁신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기심의 구성요인들 가운데 도

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호기심의 개별요인들과 경쟁추구성 간의 관계에서는 자극추구만이 경쟁추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은 경쟁추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특히 창업을 실천하려는 데 있어 호기심이란 개인적 특성요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호기심의 구성요인들은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차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호기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물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9>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메인모델)

Path			Estimate	S.E.	z-value (p값)
호기심	→ 도전성	→ 혁신성	2.459	.065	.013**
호기심	→ 도전성	→ 경쟁추구성	-.867	.082	.389

** : $p<.05$, * : $p<.10$

<표 10> 호기심 개별요인들의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결과

Path		Estimate	S.E.	C.R.	P
결핍민감성	→ 도전성	.374	.099	4.530	.000**
유희적탐구		.413	.161	2.813	.005**
사회적호기심		-.145	.117	-1.755	.079
자극추구		.186	.137	1.600	.110
결핍민감성	→ 혁신성	-.010	.080	-.144	.886
유희적탐구		.075	.127	.613	.540
사회적호기심		.142	.091	2.073	.038**
자극추구		.370	.107	3.824	.000**
결핍민감성	→ 경쟁추구성	.140	.102	1.559	.119
유희적탐구		-.062	.163	-.398	.690
사회적호기심		.141	.116	1.626	.104
자극추구		.482	.141	3.807	.000**
도전성	→ 혁신성	.423	.092	4.297	.000**
도전성	→ 경쟁추구성	.120	.108	1.052	.293

$\chi^2(df)=641.532(303)$, $p=.000$, $\chi^2/df=2.117$, $RMR=.109$, $GFI=.843$, $AGFI=.804$, $NFI=.849$, $IFI=.914$, $TLI=.899$, $CFI=.913$, $RMSEA=.067$, **: $p<.05$, *: $p<.10$

<표 11> Sobel test를 통한 개별변수들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Path				Estimate	S.E.	z-value (p값)
결핍민감성	→	도전성	→	2.918	.054	.003**
유희적탐구				2.240	.077	.025**
사회적호기심				-1.196	.051	.231
자극추구				1.302	.060	.192
결핍민감성	→	도전성	→	.863	.019	.387
유희적탐구				-.359	.020	.718
사회적호기심				.820	.020	.412
자극추구				1.056	.054	.290

** : $p<.05$, * : $p<.10$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이 도전성, 혁신성, 그리고 경쟁추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호기심은 결핍민감성, 유희적탐구, 사회적호기심, 자극추구라는 네 가지 세부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부요인들과의 관계도 분석하여 호기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기심은 기업가정신 중에서 도전성, 혁신성, 경쟁추구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요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기심의 정도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의 정도를 창업을 생각중인사람, 준비 중인사람, 창업을 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호기심이 강했다. 그리고 창업을 실현하는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도전성은 경쟁추구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호기심과 경쟁추구성의 관계에서 도전성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호기심이 경쟁추구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주요하고 도전성을 통한 관계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호기심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에 주로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 가운데 호기심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호기심은 교육 분야와 동기유발 이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로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심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 동기유발이론에서 제안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창업지원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예컨대,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도전성은 혁신성과 경쟁추구성의 선행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창업자들에게 혁신성과 경쟁추구성을 함양하기 전에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넷째, 호기심은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창업단계에 따른 호기심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 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지원방법에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예컨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창업을 한 사람보다 호기심이 더욱 높게 나타나 창업단계별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호기심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결핍민감성과 유희적탐구는 도전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혁신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들이 어떠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요인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 요인인 호기심과 하위요인을 확인하여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에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가운데 도전성과 경쟁추구성 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진취성이나 위험감수성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여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들 간의 선·후행관계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구에 위치한 Start-up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전국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폭 넓게 조사하면 더욱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김영수·정연대·윤정호(2018). 기업가정신 연구 분류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적 행동의 결과중심 메타분석. *경영교육연구*, 33(5), 483-500.
- 김예원·박희현·문병준(2019). 샤오미 창업자 레이권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3(4), 33-74.
- 김주희(2012).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의 심리자본과 도전정신이 창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진영(2019). 기업가지향성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벤처창업연구*, 14(2), 83-93.
- 김진희·김대호·김홍(2008).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벤처창업연구*, 3(2), 65-88.
- 김판수·정호영·장영혜(2019).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시장인식,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자본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5), 467-483.
- 박석희(2009). 호기심의 개념·유형 및 관광경험에 대한 영향 고찰. *여가관광연구*, 14, 1-14.
- 박석희(2007). 스포츠 팬의 행동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스포츠 팬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18(4), 173-184.
- 박재환·김우중(2015). CEO의 경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중소기업연구*, 37(2), 69-86.
- 백서인·이성민·장현준(2015). 기업가정신과 업무경력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기업유형별 기회포착, 기회실현, 위기관리전략. *중소기업연구*, 37(2), 107-146.
- 윤혜숙·송인방·김연중(2018).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창업가의 개인 특성, 배경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인지된 경영성과에 미

- 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4), 233-244.
- 이승민(201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신기성 구조연구: 2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59, 102-111.
- 이철성·이호배(2018). 모바일 기기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특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호기심의 조절적 역할과 놀이성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23(3), 1-26.
- 장성희·마운주(2011). 기업가정신이 시장지향성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5), 2777-2802.
- Baek, S. I, Lee, S. M., & Chang H. J.(2015).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and Work Experience: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Opportunity Exploration, Opportunity Realization, Risk Management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2), 107-146.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erlyne, D. E.(1966). Curiosity and Exploration. *Science*, 153(3731), 25-33.
- Birenbaum, M., Alhija, F. N., Shilton, H., Kimron, H., Rosanski, R., & Shahor, N.(2019). A Further Look at the Five-dimensional Curiosity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9, 57-65.
- Borowski, K.(2005). Curiosity and Motivation-to-Learn. *Proceedings of the ACRLTwelfth National Conference*, Minneapolis, MN.
- Bouquet, C., Barsoux, J., & Wade, M.(2018). Bring Your Breakthrough Ideas to Life.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96(6), 102-113.
- Covin, J. G., & Slevin, D. P.(1991).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23-135.
- Deci, E. L., & Ryan, R. M.(1981). Curios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Role of Motivation in Education.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 1-24.
- Jang, S. H., & Ma, Y.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5), 2777-2802.
- Jeraj, M.(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Pre-Entrepreneurial Curiosity and Entrepreneurial Curiosity. *Organizacija*, 47(3), 199-209.
- Kashdan T. B., Stikma, M. C., Disabato, D. J., McKnight, P. E., Bekier, J., Kaji, J., & Lazarus, R.(2018). The Five-dimensional Curiosity Scale: Capturing the Bandwidth of Curiosity and Identifying Four Unique Subgroups of Curious Peop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3, 130-149.
- Kashdan, T. B.(2002). Social Anxiety Dimensions, Neuroticism, and the Contours of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789-810.
- Kashdan, T. B., Disabato, D. J., Goodman, F. R., & Naughton, C.(2018). The Five Dimensions of Curiosity. *Harvard Business Review*, Sep/Oct, 96(5), 58-60.
- Kim, J. H.(2012). *A Study on the Impaction the Success Confidence of th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Challenge of Hospitality Worker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 Kim, J. H., Kim, D. H., & Kim, H.(2008). A Case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S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3(2), 65-88.
- Kim, J. Y.(2019).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knowledge pos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83-93.
- Kim, P., Jung, H. Y., & Jang, Y. H.(2019).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Market Percep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ounder's Capital Type. *Korea Business Review*, 34(5), 467-483.
- Kim, Y. W., Park, H. H., & Moon, B. J.(2019).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Founder CEO of Xiaomi, Lei Jun. *Korea Business Review*, 23(4), 33-74.
- Kim, Y., Jeong, Y., & Yoon, J.(2018). An Exploratory Study of Entrepreneurship Framework: Meta-Analysis on the Result-focused Framework. *Korean Business Review*, 33(5), 483-500.
- Lee, C. S., & Lee, H. B.(2018). The Effects of Minimalism Design Characteristics on Consumer Attitude of Mobile Devices: The Mediating Role of Curios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layfulnes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23(3), 1-26.
- Lee, S. M.(2017). Study on the novelty structure of smartphone application-Focusing on the young gener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9, 102-111.
- Loewenstein, G.(1994). The Psychology of Curiosity: A Review and Reinterpre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1), 75-98.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0), 135-172.
- Mahmood, R., & Norshafizah, H.(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Women-Own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Malaysia: Competitive Advantage as a Medi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1), 82-89.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ishikawa, K., & Amemiya, T.(2015). Development of an Epistemic Curiosity Scale. *The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4), 412-425.
- Park, J. W., & Kim, W. J.(2015). The Effects of CEO's Career Orientation on the Firm Performanc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7(2), 69-86.
- Park, S. H.(2007). Sport Fan Curiosity: A New Approach to

- the Understanding of Sport Fa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8(4), 173-184.
- Park, S. H.(2009). Concept, Type and Effects of the Curiosity to Tourist Experience. *Journal of Kyonggi Tourism Research*, 14, 1-14.
- Renner, B.(2010). Curiosity About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ocial Curiosity Measure in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3), 305-316.
- Schumpeter, J.(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venson, H. H., & Gumpert, D.(1985). The Heart of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Review*, 85, 85-94
- Yoon, H. S., Song, I. B., & Kim, Y. J.(2018).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ship and Perceived Business Performance in Entrepreneurs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of Network Market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233-244.
- Zuckerman, M., & Litle, P.(1986). Personality and Curiosity about Morbid and Sexual Ev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1), 49-56.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uriosity on Challenge, Innovation and Competition

Yong-Pil Geum*

Pansoo Kim**

Young-Hye J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riosity,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founders, on entrepreneurship.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make up the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al factors (challenge, innovativeness, competition) and the founder's curios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curiosity was divided into four individual factors: deficiency, playfulness, social curiosity, and stimulus pursuit. For each individual factor, we analyze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the founders were classified into those who simply think of starting a business, those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and those who started the business. Each group was analyzed their degree of curiosity.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nal 248 data for entrepreneurs who are preparing or starting their own business in Daegu-Gyeongbuk region.

Analysis shows that curiosity is higher in those who prepare or start a business than those who think about it. Curiosity has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challenge, the innov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mpetition. In addition, in entrepreneurship, the challeng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but it did not affect competition compos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actors of curiosity were also different, an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deficiency and playfulness on challenge, social curiosity and stimulus pursuit on innovation, and stimulus pursuit on competition.

These findings are significant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iosity as a factor influencing entrepreneur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help theoretical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i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among volunteer activities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Keywords: Entrepreneurship, Curiosity, Innovation, Challenge, Competitivenes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in 2019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novation Start-up & Growth, Daegu Catholic University, geum@cu.ac.kr

** Co-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skim@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fic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yhj0918@kmcu.ac.kr